

李滉의 理學通錄에 나타난 朱熹의 弟子들**

전연 리우 (Ts'un-yan Liu)*

明代 嘉靖 38년 己未 12월(李朝 明宗 14年), 즉 1560년 1월에, 퇴계(이황, 1501~1570)는 400여명의 朱熹(1130~1200)의 제자나 가까운 동료로 실은 宋季元明理學通錄(宋末에서明代까지의 新儒學者들의 總概觀, 이후로는 通錄이라 略稱)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퇴계의 연보를 편집한 유명한 정치가이며 퇴계의 제자인 柳成龍¹⁾은 이 학술저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朱熹선생 이후로, 유학자들은 매우 많았으나 그들의 기록이 흩어져 나와서, 그 중 어느 것도 그들 論述의 異同과 개인적 득실, 학문의 얇고 깊음과 허술하고 치밀함을 모두 보여주지 않으므로 우리 학자들에게 매우 유감스러웠다.李先生이 지금 朱子가 그의 제자에 대하여 쓴 저서와 朱子語類(이후로 語類²⁾), 實記(朱子實記), 史傳, 一統志 등을 자료로

* 오스트렐리아대학 명예교수

** 이 논문은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50호(1986) 게재논문.

- 1) 柳成龍은 1566년에 文科에 급제한 한국의 뛰어난 학자이다. 그는 일본이 침략을 시작하였을 때, 1592) 좌의정이었으며, 뒤에 영위정직에 올랐다. 房兆楹과 The Asami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69, p.59와 陶山及門諸賢錄, 3/22a-25b, 退溪全書 4, 成均館大學校, 서울, 1978, 참고.
- 2) 朱子語類(語類), 1270년 宋板의 복사판에 기초하여 1473년에 재인쇄한 板本の 영인본:臺北, 1962. 語類의 편집역사에 관하여는 陳榮棧, 朱子語類, Y. Hervoact(ed.)와 宋代書錄, Chiness University Press, Hong Kong, 1978, pp.225~6 ; 岡田試彦, 『朱子語類の成立とその板本』, 中國思想におは

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그는 그들의 言行·事蹟을 수집·요약하고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논하였다. 이 책은 南宋에서 元, 明代까지의 학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理學通錄이라 이름하였다. 또 陸象山(九淵, 1139~1193)이 주창한 학문을 따르는 자들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고, 책의 뒤에 外集으로 덧붙여져 있으니, 正說의 지속을 통하여 학술에 통일된 바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³⁾

또 1600년에 완성된 퇴계의 저작을 인쇄하는 일을 맡았던, 퇴계의 제자인 경상도 禮安人 趙穆(1524~1606)은 跋文에서 통록의 宋元부분은 서문과 함께 癸亥年(1563)에 완성되었으나, 外集은 선생이 사망한 康午年(1570) 겨울에도 아직 초안형태였다고 하였다. 1570년부터 그의 학생들 사이에서 원본의 筆寫복사본이 유통되었으며, 乙亥年(1575)에 통록의 초판이 安東縣에서 인쇄되어 나왔다.⁴⁾

通錄의 주된 내용, 즉 本集은 11권이었으며, 한 권의 부록, 즉 外集⁵⁾은 이미 유성룡이 지적한 것처럼, 퇴계가 비정통의 이단과 같이 여긴 능동적인 사교의 陸氏門下를 따르는 학자들의 생활과 언행을 기록한 것이었다. 趙穆에 의하면 비록 이 외집에 들어있는 南宋末과 元初의 40여 학자들 중에서 약간 어긋나게 제시된 바도 있으나, 寫本을 읽은 퇴

로理想と現實, 木耳社, 東京, 1983, pp.305~330 참고.

- 3) 權斗經이 편집한 退溪全書 4, 退陶先生言行通錄, 7/9b에 들어있는 年譜 참고. 年譜는 退溪全書 3의 3의 退溪先生 年譜의 제목아래에 겹줄의 註로 축소되고 간접화법으로 인쇄되어 있음:
朱子以後, 道學之士甚多, 而記載散出, 其言論之同異得失, 學問之淺疎密, 皆不可見. 學者病焉. 先生據朱子書及語類實記史傳一統志等書, 采摭其言行事跡各以類附焉. 自南渡汔于无明, 名曰理學通錄. 其爲陵學者別爲外集, 以附其後, 而學術有所統一云.
- 4) 跋은 1576년에 쓰여졌음. 退溪全書 3, 通錄, 跋, 1a를 참고. 黃仲舉(黃俊良, 1517~1563)에게 1561년에 보낸 편지에서, 退溪는 가능한 黃씨의 재정적 도움과 함께 이 저작의 원고를 베길 筆生을 찾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退溪先生文集, 20/21a-b, 退溪全書 1, 참고. 趙穆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陶山及門諸賢錄, 2/1a-5a; 黃氏에 대하여서는 같은 책 1/14b-17a 참고.
- 5) 이 책의 마지막 卷, 즉 外集은 目錄에 올라있지 않음.

계의 학생들은 『선생의 원래 사상이 손실되지 않도록, 원고에 수정을 가하기를 꺼려하였다.』⁶⁾ 우리는 여기서 어긋난 차이를 밝힐 약간의 과제를 다루어 보자.

外 集

楊簡(1140~1225)과 表燮(1144~1224)은 陸象山의 뛰어난 제자이니, 적어도 퇴계와 같은 철저한 주희 지지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단의 길을 따르는 학자의 명단에서 가장 앞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外集, 1a-2b) 또象山에게 『龍을 잡고 鳳凰을 꽤배시킬 수 있는 자』라고 은유적인 칭찬을 받았던 傅夢泉(1175, 進士 : 31a)도 그들과 같다(宋元學案, 77). 包氏형제는 다른 경우의 적절한 예이다. 包揚은 한때 매우 격렬한 어조로 주희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는데, 그 비난이 너무 거칠어서象山先生마저도 좋지 않게 느끼고 꾸짖으려 하였다(宋元學案, 77). 그러나 상산이 사망한 뒤(1193)에 포씨는 14명의 학생과 江西로부터 주희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갔었다.(語類, 119/4636~40) 王遇(35a-37b)는 주희와 陸象山 두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象山全集 35에서는 그가 후기에 학생으로 들어왔다고 한다.⁷⁾ 劉堯夫(43b-44a)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심하다. 劉氏는 육상산과 상산의 다섯째 형 陵子壽(九齡, 1132~1180)의 학생이다. 주희는 江西에 있던 1179년에 陸子壽와 대화를 하던 때를 상기하였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劉堯夫가 갑자기 물러나 방의 뒤쪽 구석에 앉아서 道敎의 묵상을 하였다. 이런 무례한 행위는 당시의 사회예법에 아주 어긋나는 것이었다. 주희가 즉시 그를 꾸짖었다. 『비록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자네의 주의를 끌지 않는다 하여도, 陵先生과 나는 자네보다 연장자이네. 어째서 자네는 우리 앞에서 그런 무례를 범하는가?』(語

6) 跋 1a-b

7)象山全集, 四部構要版, 35/28a : 『王遇子合問學問之道』(包陽 즉 包顯道에 의하여 기록됨)

類, 120/4712) 모든 이들 학자들이 퇴계에게 순수하고 전통적인 유학자로 간주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위에 언급한 이외에도, 吳壽昌(29a-b)은 禪佛敎의 경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李宗思(30b-31a)는 불교 신봉자이며, 王德輔(38b-40b)는 경박하고 부주의하며 불손한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주희는 또 王德輔가 천성적으로 陸氏門下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으로 믿었다(語類, 119/4654~55).

비록 앞에 이야기한 예에서 언급된 학자의 행동의 일정하지 않음에 대한 비평은 대체로 공평하게 되었으나, 더욱 고찰의 대상이 될 다른 경우들이 있다. 路德章(31a-32a), 陳剛(44a-b), 潘景憲(9b-10a)은 모두 呂祖謙(1137~1181)의 제자인데, 呂祖謙은 주희와 상산 둘 다와 친교를 가졌으며, 사실상 절충주의 사상의 창시자이나 순수하게 지성과 감성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여겨질 수는 없었다. 潘景憲은 비록 陸氏의 제자이나, 또한 그의 가까운 친구이며 1163년에 같이 進士의 지위를 획득한 동료이기도 하다. 潘氏는 또 주희의 맏아들 朱塾의 장인이다. 呂祖謙과 마찬가지로 葉適(1150~1223 ; 18a-b)도 다른 하나의 학파인 溫州의 실용주의 학파를 대표하는 이로 간주하여야 하며, 또한 주희에게 배우기 전에 曹器遠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또 다른 실용주의자 陳傳良(1137~1203)도 함부로 陵象山의 동료로 다루어질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퇴계가 그들을 외집에 분류하여 넣은 이유는 그들이 육씨의 확고한 지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新儒學家 사상에 맞은 좋은 모범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만약 우리가 語類 권 122~23을 완전히 읽고서, 당시에 주희가 여조겸과 엽적을 격렬히 비판하였음을 안다면, 퇴계가 그들을 통록의 문집에 넣기 꺼려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신중한 의견들을 주의깊게 분류하고 실질적으로 재배열한다면, 비정통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몇 명의 진짜 주희의 동료도 있다. 또 정리되지 않은 원고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退溪全書⁸⁾의 再版本에 외집의 본문(30b-31a)이 겹줄의 주석으로 처리되어

8) 註1 참고.

산만하게 인쇄된 몇 곳이 있다. 또 어떤 곳에는 학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曹器遠아래 24b)이 특이한 한 권을 재판하는 작업은 현대 학문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本 集

통록의 첫 권은 주희의 行狀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그의 제자이며 사위인 黃幹(1152~1221)이 1221년에 편집하였다.⁹⁾ 권2에서 8은, 비록 권8의 마지막에 張栻(南軒, 1133~1186)의 제자 아홉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희의 제자와 동료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세 권 중에서 권9와 권10은 비록 주희의 개인적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의 먼 동료로 간주되는 宋末과 元代의 학자에 대해, 또 권11은 明代 新儒學家에 대해 쓰여졌다. 기재된 16인의 明代학자 중에서는 賀欽(1437~1510)만 자세한 설명이 있고, 나머지는 薛瑄(1389~1464)에서 鄒智(1460~1491)까지는 단지 이름만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다. 퇴계는 『이들 15인은 楊廉(1452~1528)¹⁰⁾이 편집한 皇明理學名臣言行錄에 이미 연구되었다.』라 하였다.(11/1a) 楊氏는 武宗과 世宗때의 재상이며 퇴계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목록의 뒤이자 첫 권의 앞에는 주희의 論語纂訓 서문을 베낀 것과 朱震亨(1281~1358)과 曹端(1376~1434)의 行狀을 포함한 특이한 삽입문이 있다. 論語纂訓은 원래 丘子野가 쓴 것인데, 그는 주희의 사촌이며, 또한 丘膺(子服, 통록 8/27a)과 친척일 것이다.¹¹⁾ 朱震亨은 元의 유학가 許謙(1270~1337)의 제자이며 유명한 의사였고, 曹端은 불

-
- 9) 行狀의 일본어 주석본은 佐藤仁, 『朱子の生涯とその思想』, 東洋の理想と叡智, 東洋思想研究會, 福岡, 1963, pp.65~136 참고.
- 10) 楊廉의 明史282, 皇明理學名臣言行錄은 傳增湘의 藏園群書經眠錄 2, 中華, 北京, 1983, p.346에 10인의 학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음. cf. 通錄 11/1a-b, 退溪全書 3.
- 11) 1162년에 쓰여진 序는 晦菴先生文公文集, 四部叢刊 영인본, 75/4b-5a에 보임.

교와 도교를 적대하는 이야기를 늘 하였던 明初의 유명한 新儒學家이다.¹²⁾ 朱震亨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설명이 元史189를 인용하여 통록(10/21b)에 실려 있다. 퇴계의 제자 중의 한 명이 쓴 것 같은 문장위의 첫번째 주석은 다음과 같다, 『朱震亨의 전기는 여기에 너무 간략하다. 尙古錄을 참고로 하면 더 구체적인 것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¹³⁾ 丘子野의 전기는 『그는 선생의 사촌형이다. 그들은 같은 韻으로 詩를 주고 받았다.』¹⁴⁾라고 겹줄의 주석을 제외하고는 통록 8/35a에는 언급이 없다. 또 덧붙여진 첫번째 주석에는 『子野가 註를 단 論語에 대한 朱先生의 序를 여기에 삽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이들 삽입문에 나타난 자료는 분명히 편집할 때 본문에 포함시키려고 퇴계의 학생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었으나, 그 계획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것 같다.

參考書籍과 註釋

중국인의 관점이나 한국인의 관점에서나 宋代 新儒學家의 연구를 위한 통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저 이 책이 언급한 자료를 살펴보자. 목록 권2에서 퇴계 스스로 小叙를 썼다.

考亭(즉, 朱熹)은 道를 추구함에 있어서 많은 제자와 同學이 있었으나 그들의 학문과 事跡은 많이 잃어버려 전하지 않는다. 지금의 편집에서 내가 근거한 것은 宋史의 本傳, 朱子實記, 語類, 朱子大全(이후로 大全이라 약칭), 그리고 一統志 등이다. 實記와 一統志는 기술이 간략하

12) 明儒學案, 四部備要版, 44/1a-2a, 羅欽順(1465~1547)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고, 曹端에 대한 약간의 메모뒤에 다른 정통학파의 신유학가가 나옴. 羅氏는 그 책의 卷11에 언급된 학자의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음.

13) 尙古錄이라는 제목은 많이 알려진 서지학적에 나오지 않음. 아마 그것은 王文翰이 편집한 尙古類事集인 것 같음. 明史 97/30b 殿版 참고. (만약 그것이 한국서적이려면 로마체 표기가 *Sangolok*이었을 것이다.)

14) 文集 1/7a-b.

고, 語類와 大全은 원래 記事의 서적이 아니다. 기타 誌銘에 관해서는 입수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 학자의 學行志業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내가 생각하기는, 선생이 그들을 칭찬하고 비평하거나, 격려하고 억누를 때에 사용한 이야기로써 그 제자의 성취와 실수, 추구의 수준과 통찰의 정도를 판단함이 공평한 것 같다. 이것은 孔孟學派에서 관례가 되었으며,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史傳과 誌銘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 근거를 삼을 수 있으나, 완전한 기록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어류와 대전에서 취하여진 이야기가 보충되어야 한다. <原註 : 예를 들어, 이 권에서 黃勉齋(黃幹)등 여러 사람들은 史傳을 가지고 있으나, 何叔京(鎬, 1128~1175)과 程正思(端蒙, 1143~1191)에 대한 설명은 銘에 기초한다.[sic.]¹⁵⁾ 實記의 기록은 보통 간략한데 다른 자료에서 취하여진 史傳·誌銘이 훨씬 상세한 이들은 실기에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이나 事跡이 드러난 誌銘이 없는 학자들은 단지 실기에 포함된 간략한 설명과 어류와 대전에서 취하여진 주희선생의 그들에 대한 약간의 훈계가 사용되었다. <原註 : 이 권의 輔慶源(廣)의 항목에서 권4의 陳彥忠(士直)의 항목까지가 그렇다.[sic.]¹⁶⁾그들에 대한 학문적인 자료가 이 세 서적 중에서 두 가지에서 취하여진 이가 있고, <原註 : 實紀와 語類에 金敬直(去僞)에서 권5의 鄭信之(惟之)까지의 항목이 있고[sic.]¹⁷⁾ 실기와 대전은 권6의 劉雲莊(燾, 1144~1214)에서 권7의 李伯諫(宗思)까지의 항목이 있고, 어류와 대전은 蔡伯靜(淵, 1148~1236)에서 甘叔懷까지의 항목이 있다.> 또 세 서적 중에서 단지 하나에만 항목이 있는 이도 있다. <原註 : 實紀는 卷7의 陳復齋(宓)에서 趙南紀까지의 학자가 語類에는 권7의 游連叔(敬仲)[sic.]¹⁸⁾에서 周貴卿(良)까지의 학자가 그리

15) 그와 程氏는 둘 다 卷2가 아닌 卷3에서 보임. sic.는 원문이 틀렸으나 그대로 인용한다는 표시.

16) 陳彥忠은 卷4가 아니라 卷5에 있음.

17) 鄭信之는 卷6에 있음.

18) 連은 遠이 되어야 함.

고 대전은 권8의 石子重(磬)에서 池從周까지의 학자가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은 분류적으로 하였다. 또 실기에 나오는 학자가 다른 두 서적에는 언급된 훈계적 논평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선생에게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도록 허용되었으므로, 나는 감히 그들을 빼놓을 수 없다. <原註: 예를 들면 鄭成叔(文通)에서 劉子晋까지이다.>

(목록 1b- 3a)¹⁹⁾

위에 언급된 어류는 주희와 그의 친구·제자의 나날의 대화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통합되고 형식화도니 형태를 1270년에 목판으로 인쇄되었으며, 1473년에 다시 인쇄되었다.²⁰⁾ 대전은 다른 이름이 晦庵先生朱公文文集(以下 文集으로 약칭)인데, 四部叢刊에 있는 1532년 판의 영인본은 각 접힌 페이지의 板心에 朱子大全이란 명칭이 여전히 남아있다. 12권의 朱子實紀는 1507년에 武宗의 朝廷에서 죽음이 내려진 성실한 재상인 戴銑이 편집하였다. 90권의 大明一統志 즉 一統志는 翰林學士이며 吏部侍郎이었던 李賢(1408~1467)이 주도한 연구단에 의하여 1461년 봄에 편집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岳璘과 몇몇 사람에

19) 通錄 目錄 1b-3a :

考亭倡道，門弟子甚盛，然其學問事跡，多逸而不傳。今茲哀韻而編錄所可據者，自宋史本傳外惟有朱子實紀及語類大全一統志等書，然實紀一統志，叙事本略，語類大全，則又初紀事之書，其他誌銘等文字，得之龍爲稀鮮。然則諸子之學行志業，將何所徵而得見乎？愚竊以爲孟門人之於斯道，其淺深高下，有得有失，或只因師門教誨之言，抑楊進退之間，而得之。故今於諸子，亦當以是爲法。其幸有史傳或誌銘之屬者，既據此以叙事實，而兼摭語類大全固爲完備(如此卷，黃勉齋諸子史傳·何叔京謁銘·程正思基表之類是也。凡有史傳誌銘者，雖見實紀而略。實紀者，取其群者故爾)其無是者，只無以實紀中所載略叙事於前，而以師訓之見於二書者繼之，則其人品學問之梗槩，因可知矣(如此卷輔慶源以下至四卷陳彥忠，凡無史傳誌銘者皆是也)若其於此三書，或見於二而遺於一(如五卷金敬直以下至鄭信之見紀語類，六卷劉雲莊以下至甘叔懷見語類大全是也)，或見於一而遺於二(如陳復齊至周貴卿見語類，八卷石子重至池從子(周)見大全是也)亦名以類相從而錄之。又有但有姓名於實紀，而無師說於二書者，若在所略，然以其曾經先儒收錄門人之列，亦不敢遺(如鄭成叔至劉子晋是也)

20) 註2 참고.

의하여 蒙古元代에 편집되어 殘本만이 남아있는 大元一統誌를 본보기로 삼았으며, 李賢은 1464년에 宰相이 되었다.

통록 본문에 宋史의 개인 史傳은 약 20번 인용되었고, 「道學傳」 즉 「新儒學家的 傳記」(宋史 권430)에서 6번 인용되었다. 어류와 대전(즉, 문집)에서의 인용문은 때때로 아직 보충이 필요하지만 매우 풍부하다. 퇴계는 때때로 여러 책보다 단지 한 책을 인용하기를 더 좋아하였다. 예를 들면, 孝宗때 재상을 지낸 陳俊卿(1113~1186)의 아들인 陳宓(7/28b-30a)은 어류나 문집에는 언급이 없고 단지 宋史408에 『宓의 어린 시절에 그는 주희의 학생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cf. 宋史 383) 그 史傳이 인용되었다. 실기8에 彭氏 형제 중 동생인 彭蠡(1146~1200)의 설명은 있으나, 형인 彭尋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반면에 一統志는 둘 다를 이야기하였으므로 一統志의 것이 채택되었다. (5/34a-b) 다른 예로는 杜氏 형제의 경우가 있다. 杜昱(進士, 1208년; 통록에서 그의 이름이 杜燁으로 잘못 인쇄되었다)과 杜知仁. (1160~1220; 6/33b-35a) 퇴계는 그 항목아래의 주석에 다음과 같이 썼다. 『知仁은 燁의 동생이다. [sic.]²¹⁾ 伊洛淵源續錄의 설명이 실기보다 더욱 상세하므로, 나는 續錄을 인용한다.』(6/33a)

본문에는 같거나 비슷한 성질의 주석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의 주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것은 語源學, 어떤 것은 地形學에 관한 의견이고, 또 어떤 것은 순전히 본문에 관한 비평적 지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사고이다. 나는 여기에 이 책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를 위하여 몇 가지 예를 인용하겠다.

1. 陳北溪(淳, 1153~1217)

傳記에는 『嘉定 9年(1216)에 그는 科擧를 보기 위하여 수도에 머물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嚴陵과 마주쳤다(遇)』라 되어 있다.(2/12b) 嚴陵은 當春山의 異名이거나 嚴瀨와 관계가 있는데, 둘 다 오늘날의 浙

21) 燁자는 煜자가 되어야 함.

江省의 桐廬이며, 宋代에는 嚴州의 管轄구역이었다.(宋史88) 퇴계는 遇자는 過(지나가다)자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록 宋史430에 遇자가 또 틀리게 쓰여졌지만, 그 (퇴계)가 옳다.

2. 黃直翁(寅)

퇴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直翁의 이름이 실기에는 葉으로 되어 있는데, 大全(文集)의 기술과는 다르다. 그러나 목록(문집, 목록 下, 11b)과 대전의 본문(문집, 44/52a-53b)은 둘 다 寅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는 실기가 틀렸다고 생각된다.』(7/12a)²²⁾

3. 王季海(漢)

주희의 『跋郭長陽醫書』(文集 83/23b)를 인용한 퇴계의 註는 王漢의 字가 伯紀이지 季海가 아니라고 하였다(8/46a)

4. 丁仲澄

퇴계의 註는 다음과 같다. 『大全의 別集5(文集 : 別集, 5/9b-10b)에 朱先生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丁仲澄과 동일한 같은 丁仲澄에서 답하는 편지가 있다. 그러나 大全 권35에는 그 편지가 劉子澄(淸之, 1139~1189)에게 보내는 것이다. 나는 別集이 틀린 것 같다.』(8/49a) 퇴계는 또 옳았다. 문집에서의 그 편지는 권35/13a-14a에 포함된 유씨에게 보내는 10번이 넘는 편지중의 두 번째 것이다. 劉氏는 呂伯恭(祖謙)의 친구이며, 이 특별한 서신왕래 중에서 주희는 실제로 劉氏에게 최근에 伯恭의 소식을 들었냐고 묻고 있다(14a).

22) 잘못된은 實紀의 後代 版本에서 바로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退溪全書의 영인본에는 寅자가 結縲의 주석에 黃자로 잘못되어 있음.

5. 吳和中(雉)

퇴계는 주희의 『題吳和中感秋賦後』(文集84/22a)의 다음과 같은 한부분을 인용하였다.』和中은 그의 영감이 시절을 느끼고 어휘들이 생동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 賦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이 없었으므로 술을 마심으로써 도피하려 하였다. 叔通(즉, 劉叔通, 劉淮)은 그가 참으며 때를 기다리도록 설득하며,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의 구절을 들어 그를 위로하여, 진정한 친구의 도리를 잘 밝혔다. 나는 선비 계층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의 가르침이 허위라고 비난받고 배격되었는데, 어찌 학문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 두 친구가 나의 불행을 교훈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5/62a) 주희의 문장은 『慶元 己未年(1199) 8月 15日에 雲谷老人이 쓰다.』라고 끝나 있으니, 그가 사망하기 바로 전 해이다. 劉淮는 주희의 제자의 한 사람인데, 통록(6/8a-b) 이외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문집 9/12b-13a, 14a-15a와 어류 106/4263-4, 120/4710, 130/5023-4에 보인다.

劉淮의 이야기는 易經 중에서 깎아냄의 뜻인 剝에서 취하여진 것이다. 이 剝에서 처음 다섯줄은 陰이며 劉氏에 의하여 인용된 가장 위의 여섯번째 줄만이 陽인데, 선비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실려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cf. 語類 71/2901)

이미 퇴계의 이야기에서 언급되었던 이들 책이외에도 그의 저작이나 주석에 중요한 자료로 이야기되는 많은 다른 책이 있다. 퇴계는 실기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던 것 같다. 1565년에 그는 친구인 李湛(仲久, b, 1510)²³⁾에게 글을 써서 한국에서의 실기의 인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였고, 그가 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慶州府尹(李公幹)²⁴⁾이 아파서 사임하려 하므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며, 또한 順天에서 그 일을 받았던 李楨(剛而,

23) 李湛은 陶山及門諸賢錄, 1/2b-5b 참고. b는 출생.

24) 李公幹 즉 李仲樛은 李子粹語, 1/182, 退溪全書5 참고.

1212~1571)²⁵⁾은, 그에 대한 판결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계해고를 당할 잘못이 있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退溪先生文集, 11/30b)²⁶⁾ 그는 주희의 大全(문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증명으로 오류에 보충해야 할 내용이라고 믿는 것은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생의 깊은 마음속에서 판단된 것이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大全의 다른 부분에서 삽입된 약 30군데의 인용문도 있다. 朱先生의 문집과 유사한 것이, 통록 9/4b-10a에 주희의 먼 동료로 나타나는 南宋末의 新儒學家 眞德秀(1178~1235)의 문집인 西山先生眞文忠公文集이다. 元明 학자들에 대한 진덕수의 영향은 매우 방대하며, 程敏政(1445~약 1449)의 註가 달린 그의 心經(불교의 心經과 다른 것임)은 또한 퇴계와 매우 관계가 깊은데, 퇴계는 1566년에 心經後論을 써서 賢人の 과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의 탁월함을 지지하였다.²⁸⁾ 謝鐸(1435~1510)이 편집한 伊洛淵源續錄은 주희의 伊洛淵源錄을 모범으로 한 것인데, 그것의 후편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포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없는 방법으로 쓰여졌다.²⁹⁾

宋의 詩人玉屑, 鶴林玉露, 元의 文獻通考, 濂洛風雅, 明初의 宋濂(1310~1381)의 문집인 宋學士集과 같은 통록에 인용된 다른 책들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며, 심지어 明代 관리의 儒教 教本의 하나인 性理大全의 기초가 된 性理群書句解(朱熹의 제자 熊節이 편집)나, 事文聚翰墨全書(劉應李가 편집)도 귀하기는 하지만 아직 현존한다.³⁰⁾ 그런데

25) 李楨은 陶山及門諸賢錄, 1/5b-8a 참고.

26) 그 편지는 1565년에 쓴 것임. 退溪先生文集은 退溪全書 1과 2에 포함되어 있음.

27) 朱子書節要序(1558), 退溪先生文集, 內集, 42/2b-5b, 退溪全書2 참고.

28) 心經後論, 退溪先生文集, 41/11b-16a, 退溪全書 2

29) 退溪의 『李桐而에게 보내는 편지』(1561)의 내용 : 『竊見此書, 既曰淵源錄, 則其事至重, 而其所去取衰韻, 過於草草』, 退溪先生文集, 續集, 4/14b, 退溪全書 3.

30) 性理群書句解는 四庫全書에 있음. 四庫全書總目92, 참고. 영인본은 몇몇 사립 도서관에도 있음. 傅增湘, 앞에 나왔던 책 3, pp.561~2. 翰墨全書는 傅의 같은 책 3, p.841.

통록의 몇 군데에 인용된 姓源珠璣(楊信民³¹)이 편집)는 오늘날 단지 이름만 전한다. 또 통록에 몇 번 인용되었으나,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서지학적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은 책은 台寓錄 즉 台州의 거주기록이었다. 이것은 주희가 1181년에 提學兩浙東縣常平茶鹽公事에 임명되었을 때 그곳에서의 주희와 그의 제자의 생활을 다룬 책이다. 1565년에 李湛에게 보낸 편지에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나는 그대가 보내준 台寓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朱先生이 台州에서 관리생활 할 때의 행적이 너무 빛나고 인상적이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차례로 의견을 내어 모든 그의 행적을 써서 후손을 위하여 책을 편집하였습니다. 그들은 훌륭합니다! 이 책에는 實紀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다행히 지금 나의 책에 그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退溪先生文集, 11/31a, 退溪全書1)

위의 문장은 退溪先生文集考證(4/15b, 退溪全書4)에 柳道源(1721~1791)이 편집한 『台寓錄』이라 명칭한 주석에 의하여 확인된다. 柳氏의 책은 어느 정도는 金江漢(1720前後)이 시작하였던 미완성의 책 溪集考證에 기초를 두고 있다.

難點과 功績

통록의 편집은 모든 면에서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급된 책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심지어 어떤 책은 퇴계의 추천으로 한국에서 인쇄되어 유통되었다), 이 책에 쓰기 위하여 朱先生의 어류나 문집에서 문장을 선택하는 것은 퇴계와 같은 한국의 신유학 전문가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 일을 하는 것은 古典 지식에 대한 그의 재능을 증명할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수양에도 도덕적 기준을 소생시키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31) 明史, 97/30b, 殿版

외관상으로는 간단히 일에 때때로 매우 학식있는 학자도 곤란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곧 인내와 노력, 분석적인 정신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宋代 新儒學家 학문의 일반적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주희의 총 140권의 어류를 읽는데 있어 한 가지 문제가, 선생이 너무 많은 제자에게 같은 이름, 敬稱이나 字를 썼다는 것과, 그로 인한 혼동된 상태가 모두 명확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류에서 대부분의 토론, 다툼과 대화의 기록에서 사용된 것이 姓과 字가 아니고 단지 字라는 것을 인정한다. 거기에 약간의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江西 南安人 黃謙(통록 6/19a)아래에 퇴계는 다음과 같이 註를 달았다.

『그는 德炳이라는 字를 가진 黃謙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黃德炳은 邵武軍(福建) 光澤人이다. 사실상 語類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南安人 黃謙을 『南安 黃謙』(13/453)으로, 또 한 사람은 단순히 黃德炳(137/5306)으로 기록하였다. 舜功은 符叙(通錄 5/17b-18b)의 字이다. 語類에서 적어도 일곱 곳에서 舜功이 符舜功으로 언급되었으나(29/1252, 55/2140, 57/2199, 78/3261, 99/3314, 91/3751, 124/4812), 다른 곳(22/894)에서는 다른 제자 周舜功이 보인다. 그러므로 통록에서 퇴계는 『語類에서 周姓을 더하여 다른 舜功과 구별하였다.』(5/18b)라고 註를 달았다. 그러나 몇 군데에서는 舜功(아마도 符氏인 것 같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15/544, 17/662, 35/1529, 49/1961, 78/3752, 81/3437, 124/4820등)

이 방면에 있어서 퇴계의 공헌은 다음 경우에서 드러난다. 통록 5/29a-30a에 李良仲, 一名 李杞가 있다. 퇴계는 먼저 續集부터 문집(6/8a-b)까지에서 주희가 劉德修(光祖, 1142~1222)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아직 李良仲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나는 그가 養生을 유지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아

직 그에게서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를 들을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퇴계는 그리고 다음과 같이 註를 달았다.

『나는 語類(119/4656)에서 良仲이 1194년에 靈芝의 수도원에서 선생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때 선생은 황제의 앞에서 궁중강연을 한 뒤에 새 임명을 기다리고 있었고, 道教 수도원의 감독관이라는 閑職을 임명받았다. 이 편지는 朱先生이 정식으로 물러난 뒤(즉, 1199년)에 쓰여진 것이므로, 나는 여기에서 언급된 사람은 다른 李良仲이라고 믿어진다.』

주희에게는 敬之라는 字를 가진 두 명의 학생이 있다. 黃敬之의 항목 아래에 퇴계는 겹줄로 다음과 같이 註를 달았다.

『朱子實紀(8)에 黃顯子和 張顯夫(통록 6/58a-b) 두 사람이 敬之를 그들의 字로 사용하였다. 그들의 이름도 비슷하다.(한 자가 같다). 그래서 實紀에서 張氏의 아래에 張氏가 「孟子書에 관하여서 선생과 같이 연구하였다」는 편집자의 註가 있으며, 大全(文集, 58/39-42a)에 실려 있는 張敬之 顯夫에 답하는 편지에서도 그런 문제와 해답이 발견된다.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大全에서의 편지이외에 語類에서 敬之라는 사람이 나오는 비슷한 토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 중에서 선생과 孟子에 대하여 토론만 모든 것은 張氏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것이라 여겨진다.』(5/54b)

분류된 자료에서 語類가 언급될 때는 약간의 불확실함이 있지만, 실제로 張氏에 대하여서는 大全(문집, 58/41b, 41a, 42a, 42b)을 인용하였고, 黃氏에 대하여서는 어류(120/4672-3)를 인용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퇴계의 처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어류(120/4673)를 인용한 한 항목은 본문에 黃敬之의 姓이 있는데 다음 항목에는 敬之로 언급한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姓을 빼놓았다. 또한 두번째 항목에서 葉賀孫(味道)이 선생에게 보낸 질문에서

주희가 孟子書로 공부하도록 黃敬之(顯子)에게 가르친 것이 드러난다.(60/2324; cf. 57/2187, 2189, 2190 ; 58/2226, 2232, 60/2328-9등)

통록에는 퇴계의 분석적 사고가 역사적 사실을 공평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증명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王南卿(王阮, 6/45a)의 항목아래에 實紀8(宋史395에 기초한 것)의 원문이 인용되어 있다.

王阮이 袁州(江西)太守 張栻을 禮訪하였다. 張栻가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道는 武夷(福建)에 있다. 너는 거기에 가서 가르침을 찾아라.』 하였다. 그래서 阮은 考亭에 가서 朱熹를 만났다.

여기에 퇴계는 다음과 같이 註를 달았다.

『朱先生에 의하여 세워진 武夷精舍는 南軒(즉, 張栻)이 죽은 뒤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南軒에 의하여 「道는……武夷에 있다」고 이곳이 이야기되었다. 그래서 나는 朱先生이 精舍를 세우기 전에 武夷山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또 때때로 그곳에서 강연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에서 南軒의 말이 유래하였을 것이다. 선생 자신의 詩「精舍」(문집, 9/4a)에 「40년 동안 나는 악기와 책을 가지고 이곳을 왕래하였다. 나는 이 언덕에 거의 同鄉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구절은 나의 견해를 증명한다.』

그는 또 宋史의 본문에서 後(뒤)자가 公(즉, 阮)자와 見(만나다)자 사이에 삽입된 것은 그 만남이 훨씬 뒤에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6/46a).

퇴계가 이곳에서 지적한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建陽 考亭의 精舍는 1192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으며, 王阮이 주희를 방문한 것은 그가 張栻에게서 받은 충고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주희의 武夷山 주위지역에 대한 애정은 그의 문집의 많은 시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

된다. 1152년에 그가 武夷의 觀妙堂에서 하룻밤 지낼 때 거기서 그는 宿武夷觀妙堂 二首(1/8b)를 지었다. 1153년에 그는 다시 武夷를 지나게 되었고, 다른 시 「遇武夷作」(1/15a)을 썼다. 그리고 1169년에 그는 배를 타고 이 산의 하천을 지났고(9/2a 겹줄의 註에 『行視武夷精舍作』의 시가 나옴), 1178년에서 1192년 사이에 武夷七詠(6/24b-25b)이라는 일곱 수의 시를 썼는데 거기에 1183년에 정식으로 세워진 武夷精舍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그의 다른 시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9/2a-b, 2b-4b).

연구자로서 퇴계 학술의 타당성은 다음 경우에서 더욱 드러난다. 周儻의 항목(8/48a)아래에 퇴계는 14세기초의 저작인 周易會通³²⁾을 인용하였는데, 인용한 저자 董眞卿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周儻의 字는 伯莊이며, 그는 永嘉(溫州)人이다. 그는 또 文公(朱熹의 諡號)에게서 莊仲의 이름을 받았다.』

陳榮捷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작 朱子門人에 考亭淵源錄²³³⁾과 朱熹實紀²⁸을 인용하였는데, 둘 다 周儻은 주희의 제자라고 되어 있으나, 그들끼리도 일치하지 않아서(퇴계의 이야기와도 뒤얽혀 있고) 周儻의 개인적 기록이, 역시 字가 莊仲이며 永嘉人인 沈儻(통록, 5/41a)과 혼동되었을 것 같다.³⁴⁾ 사실상 어류에는 제자 周莊仲의 이름이 몇 번 나타나서(95/3913, 131/5102, 136/5272), 그의 존재도 확실한 것이다. 주희의 동료들 중에서 동일한 이름이나 字를 가진 이가 많은 경우로 판단해 보면, 단지 같은 고향이고 같은 字를 가졌으나 姓이 다른 두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2) 四庫全書總目 4(序 1328).

33) 原書는 宋端義(1447~1501)가 편집함. 오늘날 입수할 수 있는 판본은 薛應旂가 어느 정도 개정한 것임. 序 1568.

34) 朱子門人, 臺北, 1982, p.139 ; cf. p.133, 138.

附加 所見

퇴계의 통록은 약 400년 전에 지금의 田中謙二교수³⁵⁾나 陳교수의 저작과 비슷한 체제로 편집되었다. 그것의 간단한 체제와 체계적이고 선명한 배열때문에, 또 비록 약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자료의 신빙성때문에 중국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아직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결점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주요자료를 포함한 이전의 저작에서 문장이 취하여졌는데, 어류와 大全(문집)은 卷의 숫자없이 페이지만으로 인용되었다. 또 때때로 인용문의 서로 다른 곳에서 취하여져 한 곳에 합쳐졌다. 예를 들어, 6/58a-b의 張顯之에게 보내는 주희의 편지는 두 개의 다른 부분에서 세 개의 문장이 인용되었다. 실제로 두번째 문장의 첫 부분은 문집 58/41a의 편지에서 인용되었고 두번째 부분(『又論聖賢傷劣』부터)은 문집 58/42a의 다른 편지에서 인용되었다. 그러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점은 모두 책의 재인쇄와 주석을 단 박식한 동시대의 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고쳐졌고, 그래서 퇴계의 논저의 진정한 가치는 늘어나고 확대되어졌다.

주석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 16세기 위대한 신유학가의 기억력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을 하겠다. 陳復齋(陳宓, 7/29b)의 항목아래에 퇴계는 眞德秀의 『跋陳復齋詩卷』을 인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나는 스스로 경계하기 위한 도덕적 금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학문에 있어 나는 臨邛의 깊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의 도량은 南海만큼 넓지 못하고, 나의 행동은 美德이 莆田보다 떨어지며, 가난한 생활에 만족함에 있어서 義烏를 대하기 부끄럽다.』

여기서 莆田은 나의 친구 陳師復(즉, 陳復齋, 陳宓)을 이야기하는 것이다.³⁶⁾

이 금언에 언급된 臨邛(西川), 南海(廣東), 莆田(福建), 義烏(浙江)은

35) 田中, 朱門弟子師事年考, 東方學報, 44(1973), 48(1975).

36) 西山先生眞文忠公文集, 四部叢刊版, 36/25b-26a.

모두 어떤 유명한 인물과 관계있는 지역이름이다. 곽준의 주석에서 (7/30a), 퇴계는 정확히 지적하였는데 臨邛은 寧宗과 理宗때의 유학가며 정치가인 魏華父 즉 魏了翁(1178~1237)을 나타내며, 義烏는 徐崇甫 즉 徐僑(1160~1237)인데, 그는 秘書正字校書郎이며 經筵侍講이었던데, 황제의 알현때에 초라한 옷을 입어서 공공연하게 동정을 받았었다. (宋史 422) 그러나 퇴계는 남해와 관계있는 사람을 결정지을 수 없었다. 나는 감히 남해는 崔與之(1158~1239)를 나타낸다고 덧붙이겠는데, 그는 1193년에 進士科에 합격하기 전에 杭州의 국가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廣東 최초의 학자이다. 여지는 1193년에서 1239년까지 많은 지방의 관리와 군사관리로 임명되면서 세 황제를 섬겼는데, 결국에는 南海郡公으로 세습지를 받았다. (宋史 406) 나는 戊辰年(1568) 3월에 자신의 의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궁정에 제출한 퇴계의 두 번째 청원서에서, 최여지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자리를 받을 수 없는 모범적인 재상으로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퇴계선생문집, 6/30b; cf. 退溪先生文集考證, 3/29b) 그는 통록을 편집할 때에 이최씨의 시호를 무심결에 빠뜨렸을 것이다.³⁷⁾

(이 병 구 譯)

37) 崔與之의 文集이나 崔淸獻公集은 嶺南遺書 3集과 현대판 叢書集成에 들어 있음. 그의 菊坡集도 1卷과 3卷이 筆寫本으로만 남아 있음. cf. 黃蔭善, 廣東文獻書日知見錄, 改正版, Hong Kong, 1978, p.157.